

#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성정희\*

## <목 차>

1. 서론
2.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 간의 충돌 문제
3. 책임과 욕망의 중재를 통한 가족관계의 회복
4. 결론

## 1. 서론

인간은 가족을 통해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그 안에서 삶의 이치를 배우고 터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족이 주는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가족이 쉽게 해체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가족이 붕괴되면 곧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니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가운데 버제스와 로크는 가족은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라는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호작용하고, 공통의 문화를 만들어 유지해 가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sup> 다시 말해 가족도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가

---

\* 건국대

1) Burgess, E. W. and H. J. Locke. Locke,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ew York: American Book, 1953, pp.7-8(조정문-장상희, 『가족사회학-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아카넷, 2001, 19면에서 재인용).

족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분명 가족 내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으며,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마련이다. 비록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은 강요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내의 사회적 역할은 서로를 위해 각자가 책임을 저야하는 공동의 약속이자 규범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기희생이 요구되는 측면에서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있게 마련이며, 그것은 개인적 욕망과의 충돌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기도 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요즘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원인은 바로 이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이라는 둘 사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분명 지나치게 사회적 역할만이 강조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구속되고 속박된 느낌에 사로잡혀 평생 불행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후회하기 일쑤일 것이고, 반대로 개인적 욕망만이 강조되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개인적인 힘에 좌지우지되어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서로 균형이 있게 드러나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을 통해 찾아야만 할까. 본 논문에서는 그 실마리를 현실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부정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신화의 태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sup>2)</sup>

주지하다시피 신화에서는 인간이 인간 이외의 존재와 생활을 함께 누리며, 서로의 생활을 구별하지 않는 상호 의존적인 공생성(共生性)을 지니고 있으며, 신화를 형성시킨 사회를 배경으로 원시사회의 교훈과 도덕과 사회 제도 등을 반영하여 한 문화를 형성하고 개조하는 문화적 능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신화가 개인적인 생활보다는 집단적인 혹은 공동적인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sup>3)</sup> 등은 신화야말로 공통의 문화를 지닌 가족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원형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

2) NaKazawa Shinichi, 김옥희 옮김, 『대칭성 인류학-무의식에서 발견하는 대안적 지성』, 동아시아, 2005, 20면.

3) 김태곤최운삭·김진영,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88, 14~17면.

는 대안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무속신화 〈문전본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무속신화 〈문전본풀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악인형 여성 캐릭터와 같이 등장인물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시킨 경우가 있고<sup>4)</sup>, 〈문전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이 어떠한지를 규명한 경우도 있으며<sup>5)</sup>, 〈문전본풀이〉를 통해 제주도의 전통주택의 경계공간 특징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아주 흥미로운 논의를 전개시킨 경우도 있다.<sup>6)</sup> 그 가운데 본 논문의 내용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보이는 연구로 가족제도 및 가족관을 살펴 본 논의도 있었다.<sup>7)</sup>

정주혜의 경우 계모라는 외부 침입자를 통해 붕괴된 가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는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비교를 통해 두 작품에서 어떠한 가족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밝혀내었다. 〈칠성풀이〉는 가족의 가치를 혈연성과 생산성에 두었으며, 가족관계가 부자관계 중심인 수직적 연대를 주로 한다고 하였고, 〈문전본풀이〉는 가족의 가치를 윤리성에 두었으며,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모자관계로 이어지는 수평적 연대를 이루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장유정의 경우도 정주혜와 비슷한 결론을 보여주는데, 제주도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와 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아이유카르〉의 비교를 통

- 4) 권복순, 「문전본풀이의 대립적 인물성격 연구」, 『실천민속학연구』 제13권, 실천민속학회, 2009, 153~176면;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29권, 열상고전연구회, 2009, 327~362면;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199~233면.
- 5) 김재용, 「〈문전본풀이〉의 무속 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2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73~98면; 장유정, 「제주도 〈문전본풀이〉와 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아이유카르〉의 비교 고찰-신화적 성격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7권, 국문학회, 2002, 155~179면.
- 6)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3권 3호, 대한건축학회, 2007, 179~186면.
- 7) 장유정,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 『구비문학연구』 제14권, 한국구비문학회, 2002, 319~353면; 정주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대비 연구 : 가족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1~80면.

해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부부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가족 시련을 극복하는 방식이 모자중심, 그 가운데 말자중시의 의식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 내의 특정한 어떤 관계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주목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 간의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이 가족 내에서 어떠한 문제를 빚어내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화라는 장르가 지니고 있는 대칭적 사고<sup>8)</sup>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 간의 충돌 문제

제주도 무속신화 <문전본풀이><sup>9)</sup>는 가족의 이야기다. <문전본풀이>의 서사에는 일반적인 가족구성원인 부모와 자식은 물론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드러나며, 그들을 통해 가족 내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가족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 이에 대해 작품의 서사적 흐름을 따라가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다.<sup>10)</sup>

8) 대칭적 사고는 간략하게 말해 비대칭적인 관계를 뒤엎고, 동질성을 수반한 대칭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화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화가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인간 이외의 존재와도 아무렇지 않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생활하는 공생성에 기반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화적 사고는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책임과 욕망이라는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충돌을 균형적이고 대칭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9) 제주도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는 현재 8편이 채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살펴보면 아카마츠아키바가 채록한 박봉춘본, 진성기가 채록한 이춘아, 신명옥, 박남하본, 장주근이 채록한 고대중본, 문무병이 채록한 김연희, 『풍속무음』본, 현용준이 채록한 안사인본이 그것이다.

10) 본고에서는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27~130면을 활용하였다.

- (1) 남선고를 남선비와 여산고를 여산부인(혹은 보신국, 토조부인)이 부부가 되어 가난하게 살면서 아들 일곱 형제를 낳았다.
- (2) 아들들을 먹여 살리기가 어려우므로 부인이 양태를 걸어 판 돈 백 냥을 주며 남선비더러 무곡(芻穀)장사를 하도록 하였다.
- (3) 남선비가 배를 타 출발하니 배는 오동나라에 닿았다.
- (4) 오동나라에서는 노일저대 귀일의 딸이 아양을 떨며 남선비를 유인하여 내기 장기바둑을 두어 돈 백 냥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다.
- (5) 남선비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 노일저대 귀일의 딸을 후처로 삼고 형편없는 초막에서 겨죽(혹은 겨범벅)을 먹으며 살다 보니 눈까지 어두워져 버렸다.

가난한 가정 형편에서 일곱 형제를 둔 남선비는 무곡장사를 권유하는 아내 여산부인의 말을 듣고 생계유지를 위해 남선고을을 떠나 오동고을에 도착한다. 가족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집을 떠난 남선비는 가족 내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감행한 것이다. 그런 남선비는 새로운 장소인 오동고을에서 간악하기로 유명한 노일저대 귀일의 딸을 만나게 되고, 노일저대 귀일의 딸은 남선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내기 장기를 두자고 제안한다. 남선비는 노일저대 귀일의 딸에게 빠져 전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노일저대 귀일의 딸의 집에 얹혀살며 앞도 보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

너무나 쉽게 노일저대 귀일의 딸의 유혹에 넘어간 남선비는 이미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상실한 채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다가 몰락해버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버지이자 남편이지만 그동안 가난한 집안 형편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지칠 대로 지친 남선비는 잠깐이라도 가족 내의 역할에서 탈피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남선비의 모습은 누구나 생각했을법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 아버지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곧 아버지 혹은 남편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남성이라는 한 개인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인간이 지닌 양면성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난한 가정형편에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은 남선비라는 한 남성의 개인적 욕망을 어느 정도 배제한 상태로 감내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무겁고 짐스러운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한다. 그것이 곧 남선고을을 떠난 남선비가 오동고을에서 만난 노일저대 귀일의 딸에게 홀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남선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망이며, 인간이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양면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균형이 어긋나면 문제가 발생하듯, 한 집안의 가장인 남선비도 앞을 보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다. 남선비가 욕망의 소용돌이에 꼼짝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산부인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 (1) 여산부인은 삼 년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아들들에게 짚신 일곱 켤레를 삼아 달라고 하여 그 짚신이 다 닳도록 바닷가를 헤매어도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다.
- (2) 할 수 없이 부인은 아들들에게 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그 배를 타고 남편을 찾으러 떠났다.
- (3) 오동나라에 도착하여 기장 밭에서 새를 쫓는 아이의 말을 듣고 형편 없는 남선비의 초막을 찾아갔다.
- (4) 겨우 부엌을 빌려서 겨죽이 높은 솥을 닦아 쌀밥을 하여 남선비에게 밥상을 올렸다. 남선비는 밥을 몇 손가락 뜨고는 "자기도 예전에는 이런 밥을 먹었었다" 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 (5) 여산부인이 "냥군님아" 하고 자기가 본처임을 알리자, 두 사람은 손을 부여잡고 만단정화를 나누었다.
- (6) 마침 후처인 노일저대 귀일의 딸이 치마에 겨 한 되를 싸고 돌아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야단을 치다가 본처임을 알자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하고 반가워하는 척하며 함께 목욕을 하러 가자고 유인했다.
- (7) 주천강 연못에 목욕을 가서 여산부인의 등을 밀어 준다며 물을 몇 줌 쥐어 좋아 미는 척하다가 물에 밀어 넣어 죽여 버렸다.
- (8) 노일저대 귀일의 딸은 본처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선비에게 와서 본처

인 척하며 첩을 죽이고 왔다고 하자 '잘했다' 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남선비가 집을 떠난 후 한 집안의 가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온 가족은 떠난 사람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렇게 삼 년이 지난 후 여산부인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다가 결국 남편을 찾아 직접 오동고을에 가게 되고, 물어물어 남편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내 노일저대 귀일의 딸이 나타나 여산부인을 유인해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 노일저대 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인 척 위장하여 남선비와 함께 남선 고을로 향한다.

형편없는 초막에서 앞도 못 보는 흉측한 물골을 하고 있던 남편을 만난 여산부인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부역을 빌려 겨우겨우 쌀밥을 해 준다. 일곱 자식들을 남겨두고 어렵게 길을 나선 여산부인이기에 남선비가 어떤 이유로 눈이 멀고 빈털터리가 됐는지는 상관없었던 것 같다. 오로지 남편으로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다른 세상에 나가 가족을 위해 고생을 했을 남선비의 모습이 여산부인의 눈에 비쳤던 것이다. 그것은 욕망을 배제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여산부인 자신의 모습을 남선비에게도 투영한 것 같다.

내가 가족을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그러하리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남과는 다른 가족의 힘이다. 그런데 이런 여산부인과는 달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쟁취한 노일저대 귀일의 딸은 가족 내에서의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보다는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의 모습에 더욱 가깝다. 남선비의 본체가 온 것을 알고 여산부인을 감언이설로 꾀여 물에 빠뜨려 죽인 노일저대 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남선비를 속여 남선비의 가족으로 가는 모습이 바로 여성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여산부인이 죽고 그의 옷을 욕망에 사로잡힌 노일저대 귀일을 딸이 입게 되면서 안정된 어머니의 자리에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노일저대 귀일의 딸이 남선비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면서 남선비의 가족은 점차 위태로워지게 되고, 이야기는 점차 계모담의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9) 배가 수평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른 아들들은 하나도 의심  
을 아니하는데, 막내아들인 녹디성인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  
라' 고 의심을 하였다.

(10) 집을 찾아가는데, 어머니가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고 친  
어머니가 아님을 의심했을 뿐 아니라, 집에 가서 밥상을 놓는 것이 서로  
뒤바뀌는 것을 보고 친어머니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일곱 형제는 부모님을 마중 나가는데,  
이상한 것은 일곱 형제 중 여섯 형제나 자신의 어머니가 뒤바뀐 것을 모  
른다는 것이다. 막내아들인 녹디성인만이 배가 수평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즉에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지만 여섯 형제는  
녹디성인의 말을 믿지 못한다. 답답한 녹디성인은 집을 찾지 못해 이 곳  
저 곳을 기웃거리는 행동이나 밥상을 놓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님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그제야 나머지 여섯 형제  
들도 진짜 어머니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애초에 친어머니가 아님을 눈치 채지 못한 여섯 형제의 모습은  
결국 욕망을 따른 인물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눈이 먼 아버지와 여섯 형제 모두가 욕망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라캉은 어린아이는 자신들을 반감계 대하는 제3자나 혹은 어머니의 목소  
리, 제스처는 어린아이의 지각을 구조 짓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제3자의  
관계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자식들이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이 존  
재하며 자기 스스로를 느끼고 있다는 확신감은 원초적으로 자신을 보살  
펴주는 사람, 간단히 말하자면 어머니를 통해서 중재된다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시선이 중요하며, 자식들은 어머니가 좋  
아하는 일을 함으로서 어머니의 욕망을 성공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1)</sup>

11) Peter Widmer, 홍준기·이승미 옮김, 『욕망의 진부·자크 라캉 또는 제2의 정  
신분석학 혁명』, 한울, 1998, 42~45면.

이런 점에서 여섯 형제 역시 매혹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노일저대 귀일을 딸을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진위여부를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신들을 반갑게 대해주는 노일저대 귀일의 딸은 이미 여섯 형제에게 자식으로서 그들이 소망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섯 형제는 어떤 대상과 구체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야만 자신들의 능력을 회복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보살펴 줄 대상이 있어야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자식은 대상은 물론 자신의 모습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여섯 형제는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일저대 귀일의 딸이 친어머니인지 아닌 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욕망에 얽여서 무조건 어머니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막내 녹디성인은 부모로부터 주체적인 독립이 이루어진 자식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모습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애초 배를 타고 마을로 들어올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아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안정된 가정에 대한 목마름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은 녹디성인으로 하여금 어머니란 존재의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문제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식으로서 부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어야만 만족하고, 그 속에서만 안정감을 얻는 것. 요즘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유약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무조건적으로 바라는 헛된 욕망이 〈문전본풀이〉의 여섯 형제의 모습을 통해 보여진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11) 아들들이 의심하는 것을 눈치 챈 첩은 아들들을 죽일 계책을 꾸며 "아이고 배여!, 아이고 배여" 하며 남편더러 점을 쳐 오라고 했다. 남편이 점쟁이를 찾아가니 첩은 지름길로 먼저 와서 점쟁이로 가장하고(또는 점쟁이를 매수하고) "그 병은 아들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 는 점괘를 내린다. 두 번(또는 세 번)의 점치기에도 후처가 점쟁이로 가장하여 같은 점괘를 내린다.

(12) 남선비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아들들의 간을 내려고 칼을 간다.

일곱 형제 모두가 자신이 친어머니가 아님을 알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노일저대 귀일의 딸은 전처의 자식들을 없애기 위해 피병을 부리고 스스로 점쟁이인 척하여 남선비에게 전처의 소생을 모두 죽여 간을 꺼내 부인에게 주라는 말을 건넨다. 그 말에 어리석고 우둔한 남선비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칼을 갈기 시작한다. 이는 부모가 자식들이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파악된다.

자식이 자신의 품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면서도 자식이 떠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의 모습은 너무나 일반적이다. 자식이 부모의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할 때, 즉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할 때 부모는 자식을 공격의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질 수 있는 양면적인 특성이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자식들의 의심으로 인해 노일저대 귀일의 딸이 자식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의 이면에는 부모가 자식과의 분리-독립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언제까지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식에 대한 기대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 이중적인 마음이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이미 이 가족의 사태는 서로 간의 지나친 욕망이 빚어낸 최악의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유일하게 자신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여산부인이 죽자 가족을 유지하고 지켜낼 기둥이 무너지면서 결국 계모와 친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가는 형국이 되고, 남선비의 가족은 위기의 절정에 치닫게 되는 것이다.

### 3. 책임과 욕망의 중재를 통한 가족관계의 회복

앞서 살펴봤듯이 여산부인과 녹디성인을 제외하고 <문전본풀이>에 등

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가족 내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의 불균형으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남선비는 가난한 가정에서 아내와 일곱 형제를 둔 가장이라는 무게감으로 인해 가족 내의 책임에서 벗어나 욕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족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서사의 흐름을 따라가며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3) 옆집의 청태산 마고할머니가 불을 빌리러 왔다가 이를 알고 아들들에게 알린다.

(14) 막내아들은 형들을 대기시켜 놓고 들어가 아버지에게 "우리 일곱 형제의 간을 내려고 죽이면 아버지가 흠 한 삼태기씩만 덮으려 해도 고생이 아닙니까? 제가 형님들의 간을 내어 올 것이니 마지막에 저의 간만 아버지가 내십시오." 하고 속여서 칼을 빼어 왔다.

(15) 아들들이 들판으로 한참 도망쳐 가노라니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죽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산에서 노루가 내려오고 있으니 잡아서 다짐을 받으면 면할 도리가 있다." 고 했다.

(16) 잠을 깨고 얼마간 가니 과연 노루 일곱 마리가 내려오고 있으니 잡아놓고 죽이려 하자 "나는 산신령이 타는 동물이니 잡지 말고 뒤에 멧돼지 일곱 마리가 오고 있으니 잡아라" 고 가르쳐 주었다.

(17) 과연 멧돼지 일곱 마리가 내려오고 있으니 어미는 새끼 번식하도록 남겨두고 새끼 여섯 마리를 잡아 간을 내어 내려왔다.

(18) 멧돼지 간 여섯을 어머니에게 드리니 어머니는 중병 들어 약 먹는데 보는 법이 아니라면서 아들을 쫓아내고 간을 입술에 바르는 척하면서 자리 밑으로 숨겨 버렸다. 막내아들은 창구멍으로 살펴서 그것을 모두 알았다.

(19) 막내아들이 들어가 좀 어떠시냐고 하니까 하나만 더 먹으면 아주 깨끗이 낫겠다고 하므로 어머니 머리의 이나 잡아 드리고 죽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자리를 치워 드리겠다고 해도 거절하므로 화를 내어 이불을 걷어 던지니 간 여섯 개가 나왔다.

(20) 막내아들은 간 여섯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의붓자식 가진 어른들 이것 보고 정다십시오." 하고 크게 외쳐 폭로하니 여섯 형제가 왈칵 달려들었다.

(21) 계모 노일저대 귀일의 딸은 도망갈 길이 없어 벽장을 뜯어 변소로

도망가 디딜팡(변을 볼 때 디디어 앉는 돌 판자)에 목매어 죽었다. 아들들은 원수를 갚는다고 신체의 여러 부위를 끊어 던지니 여러 가지 물건이 되었다.

(22) 면목이 없는 아버지는 올레(집의 출입로)로 도망치다 '정주목' (대문 대신 굵은 기둥에 구멍을 뚫고 가로나무를 걸치는 것)에 부딪혀 죽었다. 그래서 후처는 변소신(廁神)이 되고 아버지는 정주목신(주목정살지신)이 되었다.

(23) 일곱 형제는 죽은 어머니를 찾자고 오동나라에 가서 주천강 연못의 물을 푸고 보니 어머니는 뼈만 남아 있으므로 서천꽃밭에 가서 살 오를 꽃, 피 오를 꽃, 말할 꽃, 웃음 옷을 꽃, 환생꽃 등을 따다가 어머니 시신 위에 놓아 살려 내고, 항상 추운 물속에만 있었으니 따뜻한 부엌의 신 조왕으로 들어서게 했다.

(24) 아들들은 각각 집안을 지키는 여러 신이 되는데, 똑똑하고 역력한 막내아들인 녹디성인은 일문전(상방·마루방의 앞쪽 문신)이 되었다.

이제 위기에 처한 남선비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해결책은 막내아들인 녹디성인이 쥐고 있다. 계모의 모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일곱 형제는 옆집에 사는 청태산 마고할미의 도움으로 계모의 계락을 알게 되고, 녹디성인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간을 구해오겠다고 한다. 이때 녹디성인의 꿈에 죽은 어머니 여산부인이 나타나 간을 구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준다. 가정을 위해 죽어서도 자식의 꿈에 나타나 문체해결에 도움을 주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 후 녹디성인은 짐승의 간을 구해 계모에게 주고 거짓으로 먹는 척을 했던 계모는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들키자 벽장을 뜯어 변소로 도망을 가 발판에 목을 매 죽는다. 노일저대 귀일의 딸이 죽고, 그제야 욕망의 늪에서 벗어난 남선비는 스스로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자 올레로 도망을 치다가 정주목에 부딪혀 죽게 된다. 그로 인해 계모는 변소신이 되고, 아버지는 정주목신이 된다.

개인적 욕망에만 빠졌던 두 사람이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죽자 막내아들 녹디성인은 다른 형제들과 오동마을 주천강 연못 속에서 죽은 어머니의 시신을 찾은 후 서천꽃밭에 있는 환생 꽃으로 어머니를 살려내고 조왕신으로 섬기게 된다. 그 뒤 일곱 형제 역시 각각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신직(神職)을 부여받는데, 그 중 막내아들인 녹디성인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일문전신이 된다.

이처럼 남선비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 내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 간의 갈등으로 인해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책임과 욕망이 중재되면서 가족의 문제는 해결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전본풀이>의 마지막에 제시된 가족의 신직 배치를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직 배치에서 주목할 것은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가 대립관계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집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녹디성인과 여산부인이 차지하였으며, 나쁜 자리는 남선비와 노일저대 귀일의 딸의 몫이었다. 이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앞서서도 언급한 대칭성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선비와 녹디성인의 신직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분명 남선비는 가족의 아버지이자 남편임에 틀림없지만 개인적 욕망에 휩싸여 가족구성원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아내 여산부인을 죽음에 내몰았으며, 일곱 명의 자식까지 죽일 상황에 빠졌던 것이다. 뒤늦게 후회를 하지만 무책임하고 무능력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이로써 남선비는 가족을 지키기는 하지만 문간에 나왔거나 문전의 거리를 배회하는 정낭신(혹은 동티신)이 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녹디성인은 자식이지만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한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애초부터 계모를 의심하여 물리치고 후에 죽은 어머니를 찾아 회생시키는 녹디성인은 끝까지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실질적인 가장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결국 아버지가 있어야 할 일문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산부인과 노일저대 귀일의 딸의 신직배치에 대해 살펴볼수록 하겠다. 누가 봐도 여산부인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인물이다. 일곱 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편에게 무곡장사를 하도록 제안했으며,

그런 남편이 삼 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자 남편을 찾아 떠나면 길을 나선다. 개인적 욕망을 절제한 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충실히 감당했던 여산부인은 그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노일저대 귀일의 딸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결국 욕망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책임에 주목했던 여산부인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부엌 즉 조왕신이 된다. 그에 반해 욕망에 치우쳐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값아 먹었던 노일저대 귀일의 딸은 부엌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변소신이 된다. 그렇다면 왜 한 가족을 무너뜨린 노일저대 귀일의 딸을 집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집안의 일부분인 변소신으로 좌절하게 한 것일까.

노일저대 귀일의 딸이 변소신이 된 것은 본처와 첩 사이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집안의 하나의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부엌이라는 곳과 변소라는 곳이 주는 의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부엌과 변소가 지니는 중요성은 상당하다. 왜냐하면 부엌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 식욕이 해결되는 곳이고, 변소는 음식으로 채워진 몸이 배설을 통해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식욕과 배설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부엌과 변소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두 곳 모두 인간에게 중요한 장소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을 통해 본처와 첩의 사이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신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마련된다.

부엌은 모두에게 열린 공개적인 장소라면 변소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폐쇄적인 장소로 볼 수 있다. 욕망의 분출이라는 지점에서조차 부엌은 가족 공동의 욕망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소이지만 변소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은밀한 장소이다. 한 집안을 구성하는데 무엇보다 부엌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했던 여산부인은 가정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부엌의 신으로 좌절하여 가족을 두루 살피는 존재로 남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변소 역시 집안을 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적 욕망으로 가득차 한 가족을 위협했던 노일저대 귀일의 딸도 변소의 신으로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부엌과 변소가 그렇듯이 가족 내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도 상관

관계를 지니며, 결국 어느 한 쪽을 배제하지 못하고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일저대 귀일의 딸은 집 밖으로 내쫓지 않고 집안의 일부분인 변소신으로 좌정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신화는 무의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고의 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신화에서는 현실세계가 비대칭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런 관계를 반전시켜 대칭적인 관계로 바꾼다는 것.<sup>12)</sup> 이러한 신화적 사고의 논리가 문전본풀이에서의 가족의 신직배치를 통해 적절히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사랑이 아닌 증오의 대상이었던 노일저대 귀일의 딸까지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신직을 부여받은 것이며, 이는 곧 책임과 욕망의 중재를 통해 새로운 가족이 재탄생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가족구성원으로서 오로지 개인적 욕망을 억누른 채 가족 내의 사회적 역할에만 전념하는 일도 분명 한 개인에게는 또 다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적 욕망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가족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구성원으로 노일저대 귀일의 딸을 변소의 신으로 좌정하게 하여 그것을 통해 개인적 욕망을 해소하도록 하나의 여지를 놓아 둔 것은 노일저대 귀일을 딸을 저 멀리 외면하고 차단한 것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 집안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이 각자의 자기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외부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함은 물론 가족 내부의 결손력을 단단히 하는 기능을 지니게 된다. 이는 제주도 무속신화 〈문전본풀이〉가 가족 모두가 가장 합당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대로 기능을 해야지만 가장 바람직한 가족공동체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대칭성의 논리에 작동되는 무의식<sup>13)</sup>이 의식의 표면으로 부상하여 노일저대 귀일

12) NaKazawa Shinichi, 김옥희 옮김, 앞의 책, 59면.

13)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정신과 의사 이나시오 마테 블랑코

의 딸까지 한 가족으로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신화적 특징임과 동시에 인간이 지녀야 할 모습이며, 가족의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 4. 결론

예나 지금이나 가족 내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문제시 되어 왔던 것 같다. 가족 내의 무거운 책임감은 때로는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인이며, 결국 그것이 가족을 해체하고 붕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되면 스스로 개인적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지나치게 책임만을 강요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인간의 삶에서 욕망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책임과 욕망의 중재를 통해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 해야만 건강한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삼차원의 세계와는 다른 무의식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대칭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 무속신화 <문진본풀이>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욕망에 치중된 가족구성원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은 바로 또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가족이 된 이상 가족구성원은 남이 아닌 또 다른 나이며, 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사랑과 증오의 대상이 비대칭적인 것이 아닌 대칭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두 대상을 하나로

---

(Ignacio Matte Blanco)의 「무한집합으로서의 무의식-복논리의 시도」(Karnac Books, London, 1975)라는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로 그는 총 2가지의 무의식의 원리를 설명하였는데, 그 가운데 무의식의 원리Ⅱ를 ‘대칭의 원리라고 불렀다. 무의식의 원리Ⅱ는 일반적인 과학적 사고에서는 모든 것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강한 즉 서로 뒤섞여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균질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대칭성의 원리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무의식은 비대칭적인 관계를 마치 대칭적인 것처럼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NaKazawa Shinichi, 김옥희 옮김, 앞의 책, 60~66면.)

포괄하는 것. 다시 말해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된 이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화적 사고이며, 대칭성의 논리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야말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일 것이다.

K C I

## 참고문헌

- 권복순, 「문전본풀이의 대립적 인물성격 연구」, 『실천민속학연구』 제13권, 실천민속학회, 2009.
-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29권, 열상고전연구회, 2009.
- 김재용, 「〈문전본풀이〉의 무속 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2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김태곤·최운식·김진영,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88.
-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3권 3호, 대한건축학회, 2007.
-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장유정, 「제주도 〈문전본풀이〉와 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야이유카르〉의 비교 고찰-신화적 성격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7권, 국문학학회, 2002.
- 장유정,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 『구비문학연구』 제14권,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 정주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대비 연구 : 가족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조정문·장상희, 『가족사회학-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아카넷, 2001.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NaKazawa Shinichi, 김옥희 옮김, 『대칭성 인류학-무의식에서 발견하는 대안적 지성』, 동아시아, 2005.
- Peter Widmer, 홍준카이승미 옮김, 『욕망의 전복-자크 라캉 또는 제2의 정신분석학 혁명』, 한울, 1998.

## 국문초록

###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성정희

본 논문은 제주도 무속신화 <문전본풀이>를 통해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 내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문제시 되어 왔던 것 같다. 가족 내의 무거운 책임감은 때로는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인이며, 결국 그것이 가족을 해체하고 붕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되면 스스로 개인적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지나치게 책임만을 강요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인간의 삶에서 욕망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책임과 욕망의 증재를 통해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며,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 해야만 건강한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삼차원의 세계와는 다른 무의식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대칭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 무속신화 <문전본풀이>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욕망에 치중된 가족구성원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은 바로 또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가족이 된 이상 가족구성원은 남이 아닌 또 다른 나이며, 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사랑과 증오의 대상이 비대칭적인 것이 아닌 대칭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두 대상을 하나로 포괄하는 것. 다시 말해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된 이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화적 사고이며, 대칭성의 논리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야말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일 것이다.

주제어 : <문전본풀이>, 제주도 무속신화, 가족, 욕망, 책임

## Abstract

### <Munjon-Bonpuri(문전본풀이)> through the family's problem and its solution

Seong, Jeong-Hee

In this paper, Jeju Island Myth <Munjon-Bonpuri(문전본풀이)> and through the family's problem was to find the solution. Now and in the family and social roles and the conflict between personal desires seems to have been questioned constantly. Heavy responsibility in the family is sometimes a factor that stimulates the inner desire and eventually dismantle its family and will serve as the cause of the collapse. So when a family member with their own personal desires need to be able to control themselves. May impose too much responsibility not only of course, but at the desire in human life can not be totally excluded. Thus, through the mediation of responsibility and desire to solve problems between family members and family members help each other as being a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have become will be maintained. And is not that different from the world of three-dimensional world of the unconscious is possible only applied the principle of symmetry would say that.

Jeju Island Myth <Munjon-Bonpuri> through focus have seen as a desire to return power to place a family member that is that another family member. More than one family member to the family rather than the other nayimyeo others, is the driving force to develop and mature me. The subject of love and hate, rather than asymmetrical, symmetrical been considered one of the two objects that span. In

other words, 'family' that it is more than the other one was to go forward in a positive direction will control. This mythical thought, and I'll say the logic of symmetry. And indeed this incident, we now live in its attitude to life is a basic need.

Key words : 〈Munjon-Bonpuri(문전본풀이)〉, Jeju Island Myth, family, Desire, Responsibility

논문 받은 날 : 2010년 10월 22일  
심사 기간 : 2010년 11월 1일~15일  
신기로 한 날 : 2010년 11월 22일